

崔仁旭의 小說 研究

— 短篇小說을 中心으로 —

金 永 和

〈目 次〉

- I 序
- II 作品世界
 - 1) 脫世俗과 사랑의 아픔
 - 2) 私的 心境, 私的 處地
 - 3) 民衆의 受難
 - 4) 生活과 倫理
- III 技術의 樣相
 - 1) 作中人物
 - 2) 背景과 霧圍氣
- IV 結

I 序

河南·崔仁旭(1920~1972)은 1938年 短篇小說 「시들은 마음」이 每日申報에 入選되어 發表한 것을 계기로 作品活動을 시작했다. 이 때부터 死亡할 때까지 대략 30余年間 教育界, 言論界 등에 從事하면서 長篇小說 18篇內外, 短篇小說 50余篇을 發表한 것으로 보인다. 長篇小說 가운데는 「華麗한 慾望」(1958年 自由新聞連載), 「孤獨한 幸福」(1959年 自由新聞 連載), 「青春의 季節」(1958年 女性界 連載) 등 作品의 素材를 現代에서 구한 小說도 없지 않지만 대부분 歷史에서 素材를 찾아 쓴 作品들이다. 短篇小說 가운데서도 「地圖」(1966), 「逆徒라는 이름의 사나이」(1965), 「木蓮」(1964) 등 歷史에서 取材한 作品도 있으나 대체로 現實에서 素材를 찾아서 쓴 作品들이다.

文學의 素材를 歷史에서 취하건 現實에서 취하건 소재가 文學의 價値를 決定짓는 것은 아닌 만큼 그것이 文學的 評價와는 別個의 問題이기는 하다. 그러나 崔仁旭의 小說들은 長篇보다 短篇, 단편 가운데서도 現實에서 取材한 작품이 더 文學的 意味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現代 韓國文學이 풍부한 遺産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역사도 짧고 文化的 土壤도 비옥하지 못한 어려운 여건 아래서 成長·發展해 온 現代文學이 풍성하기를 期待하는 것은 차라리 無理한 주문일 것이다. 때문에 빈약하면 빈약한 대로 우리 文學을 새롭게 整理하고 意味를 賦與하여 文學史의 바른 定立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前提條

件으로 作家와 作品에 대한 研究가 先行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筆者는 이미 作故한 作家에 대한 点檢을 계속하고 있다. 이번에 崔仁旭을 擇한 것은 그의 文學이 풍부하다고 판단해서가 아니라 作故한 이상 一次 점검할 필요가 있고, 그런 연후에 文學史에 어떻게 投影될 것인가를 생각할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글은 崔仁旭의 文學的 特徵과 成果를 살펴보려는 데 있다. 그러기 위해서 그의 단편소설을 論議의 對象으로 선택했다. 그것은 그의 문학적 특징과 성과가 短篇에 더 드러나리라는 생각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이 글을 쓰기 위한 준비를 하면서 意外로 崔仁旭의 文學에 대한 研究나 批評이 발견되지 않았다. 筆者가 資料를 제대로 蒐集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전제하면서도 作家論은 물론 作品論 한편 발견할 수가 없었다. 그나마 그에 대한 言及은 語文閣刊 新韓國文學全集(17)에 수록된 申東漢의 崔仁旭 文學에 대한 解説 정도가 고작이다.

이 글은 이런 전제 위에서 쓰여지고 있다. 筆者나름대로 그의 단편소설들을 精讀하고 그 소설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와 특징들을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記述되고 있다.

Ⅱ 作 品 世 界

1. 脫世俗과 사랑의 아픔

「月下吹笛圖」(1939), 「落葉抄」(1948), 「어떤 夫婦」(1948), 「俗物」(1951), 「人生的 그늘」(1953), 「연옥이」(1953), 「막다른 골목」(1958) 등의 소설에 드러나는 것은 男女 사이에 일어나는 愛慾과 葛藤의 문제다. 이런 문제는 文學의 素材로 자주 등장하는 것이고 자칫 通俗에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 문제이면서 자주 反復되는 것이다.

그러나 위에 열거한 작품 가운데서 「月下吹笛圖」와 「落葉抄」는 愛慾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면서도 浪漫的 분위기 속에 未婚의 젊은 男女間에 빚어지는 사랑과 아픔을 그린 것으로 余他的 作品들보다 독자들에게 呼訴力을 갖는다.

「月下吹笛圖」는 作品의 背景이 雲湖寺라는 절로 되어 있다. 절이라는 것은 암암리에 反都市, 反世俗을 드러낸다. 이런 곳에서 일어나는 男女關係는 특이한 樣相을 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도 등장인물인 男女가 모두 病弱해서 休養하고 있다.

이들이 달 밝은 가을 밤 제월담이라는 절에 있는 못가에 앉아 물속에 비친 달을 들여다보면서 對話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면 그들 사이의 관계는 世俗을 초월한 感傷의 세계일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한 쪽은 文人이요, 다른 쪽은 畫家다. 다 같이 美를 추구하고 그 속에 사는 사람

들이다.

이들 사이에 일어나는 감정의 변화와 사랑은 세속을 초월한 낭만적인 것이다. 그들은 世俗의 雜事에는 아예 외면하고 인간의 순수한 감정에 매달린다. 이런 浪漫的이고 脫世俗的 現實逃避의인 작품세계는 이 작품이 이루어진(1939) 時代를 전제한다면 體制順應이라는 비판적 요인을 안고 있으면서도 당시 삶에 지친 독자들에게 慰安과 休息을 주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作品의 도처에 발견되는 浪漫的 色調와 自然에의 親和는 독자들의 마음에 아름다운 꿈을 안겨주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와 비슷한 작품이 「落葉抄」다. 이 作品의 主人公 <동진>도 「月下吹笛圖」의 <정주>처럼 前職記者다. 그는 都市에 사는 것도 싫어졌고 新聞記者란 직업도 싫어졌다. 그는 자기의 생활에 회의를 느끼고 시골에 내려간다. 그런 사정은 다음과 같은 데 잘 드러난다.

동진은 서울이 딱 싫어졌다. 그래서 봄 들며 떠나는 곳이 고향이었다.

그는 모든 것에 환멸을 느꼈다. 도대체 자기는 무엇 때문에 사는 것인지 생각하면 할수록 백지처럼 무의미한 것이었다. 한달에 수천원의 월급을 받기 위해서 격에 맞지도 않는 신문사의 기자 노릇을 해야 하는 것인가. 월급을 받아서 먹고 산다는 것, 개나 도야지처럼 위선 먹어야 산다는 것…….

사람이란 금수처럼 먹고 산다는 것 그것만으로는 만족할 수는 없다. 무엇이든 인간으로서의 보람있는 일을 하는데서 비로소 사람다운 의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보람있는 일은 열에서 한 가지도 되는 것이 없었다. 되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그는 그러한 이유를 구실 삼아서 자위를 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이유가 모두 환멸의 근본이 되어 그를 자꾸만 어둠의 구렁창으로 몰아 넣었다.

하루내 다방에 앉아 차를 마시고 담배를 피워본다. 모든 것이 눈에 거슬린다. 도무지 사람들의 날뛰는 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어찌 생각하면 어린애들의 소꿉장난처럼 웃업기도 하고 어찌 보면 노엽기도 하고 그래서 화풀이로 술을 마셔본다. 술이 갑신 취해서 온몸에다 빈대떡 냄새를 잔뜩 올려가지고 어둠컴컴한 하숙으로 돌아오면 흔히 여욕이가 와서 자기를 기다려 주는 것이었다.

그런 중에도 마음에 가는 것은 여욕이었다. 여욕이만은 싫지 않았다. 그러니 그것도 마음에 흡족한 사랑은 아닌 것이다. 어딘지 허수한 쾌가 있다. 허구가 있다. 가식이 따른다. 악몽처럼 어수선한 가운데 봄이 되었다.¹⁾

<동진>은 자기의 現實生活에 회의를 느끼고 있다. 記者로서의 자기의 역할에 대한 회의, 인간으로서의 보람있는 일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自覺이 그를 괴롭히고 있다. 平凡한 日常事의 反復과 그에 따른 회의와 권태, 그리고 그런 생활을 받아들이는 都市, 특히 서울이 싫어진 것이다. 이런 反都市, 脫現實의 태도가 그로 하여금 시골로 내려가게 한다. 그것은 서울에서 살기를 바라는 그의 연인인 <여욕>과의 갈등으로 이어진다.

1) 「落葉抄」, 「底流」, (興國研文協會, 1953), pp.66-68.

「은 시골생활이 그렇게도 좋으세요?」

「한말로 좋다고보다도 나는 거기서 어떤 마음의 위안을 받을 수 있을 것만 같아서 그러는 거지요. 허긴 사람 사는 데는 결국 마찬가지겠지만」

「마찬가지는 무에 마찬가지예요. 현대인이 살 곳은 아무래도 도회지라고 전 그렇게 생각해요.」(…中略…)

「여옥씨는 도회지가 그렇게도 좋습니까?」

「좋다고보다도 그만치 모든 시설이 현대적이니까……」

동진은 잠자코 담배를 피웠다. 담배를 피우는 동진의 마음에는 버란간 진달래로 붉게 장식한 산들이 환히 떠오르며 마음은 일순 황홀한 경지로 헤엄칠 뻔했다. 이 길로라도 곧 차를 달려 고향으로 가고픈 생각이 울적 가슴을 치밀었다.²⁾

이 對話에서 드러나는 <동진>과 <여옥>의 갈등을 통해서도 <동진>의 反都市的인 태도와 田園의 鄉愁가 잘 나타나 있다. 이것은 「月下吹笛圖」에서 보여준 反都市的, 脫世俗的, 自然親和的 요소와 일맥 상통한다.

두 作品 모두 사랑의 挫折이라는 공통점을 浪漫的 氛圍氣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

이런 要素는 1945년 解放前後를 통해서 보여준 한국 소설에는 보기 드문 世界다. 다소 文學精神의 깊이가 부족한 점이 없지 않지만 浪漫的 분위기와 色調 아래 自然에의 憧憬과 接近은 李朝文學이 보여준 自然美의 발전에 한걸음 접근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나머지 作品들 곧 「俗物」, 「연옥이」, 「人生的 그늘」, 「막다른 골목」 등은 家庭을 가진 主婦가 남편 아닌 사람과 姦通한 이야기요, 「어떤 夫婦」는 男便이 아내와의 女子와 간통한 이야기다. 신뢰와 사랑을 상실하고서도 夫婦關係를 유지하고 있는 悲劇的, 虛無的 人生事의 斷面을 崔仁旭은 이들 作品에서 보여주어 人生的 意味를 독자에게 묻고 있는 듯 싶다.

2. 私的 心境, 私的 處地

「落花賦」(1940), 「못난이」(1949), 「童子像」(1950), 「登山俱樂部」(1956) 등은 私小說的 要素가 짙은 作品이다. 私小說이 대체로 작자 자신의 人生觀이나 生活態度를 표현한다든지 身邊雜記的인 日常의 事件을 小說化한 것이라는³⁾ 一般論을 전제할 때 위에 열거한 作品들은 그런 요소가 있는 作品들이다.

우선 이들 作品의 主人公이랄 수 있는 <나>(「落花賦」), <나>(「못난이」), <나>(「童子像」), <세진>(「登山俱樂部」) 등은 崔仁旭의 分身이거나 그의 그림자가 投影된 人物로 보인다. 말하자면 이들 주인공은 이 作品들을 쓸 때의 崔仁旭의 心境, 處地, 立場 등이 알게 모르게 반영되고 그의 人生觀이나 生活周邊에서 일어난 일들을 記錄한 것 같다.

2) “落葉抄”, 上揭書, pp.70-71.

3) 世界文學大事典, (文元閣, 1972), p.1423.

특히 「童子像」은 崔仁旭 자신의 어린애의 죽음에 대한 記錄⁴⁾ 이라고 밝히고 있어 이 소설의 主人公 <나>가 崔仁旭의 分身임이 틀림없고, 기타의 作品도 모두 그런 類似性을 지니고 있다.

「落花賦」는 植民地時代 慶尙南道 합천에 있는 절(寺)에서 文學青年인 <나>의 陰鬱하고 倦怠로운 삶이 기록되어 있다.

누워도 가당찮고 앉아도 가당찮다.

가만히 생각하니 쓰다 둔 장편도 이달 내론 끝을 내야겠고 늘 버리기만 하던 도스토예프스키도 득과했으면 하는데 날로 늘어만 가는 이 권태는 죽여줄 수도 없다. 나보다도 더 나태하고 우울한 인간은 이 하늘 밑에는 또 없을 것이다.

나도 이제 제비처럼 좀 날새고 도마뱀처럼 재재발라졌으면 그리고 하루를 살다 죽어도 좀더 명랑하게 쾌활하게 살고 싶다.(…中略…)

방으로 뿌루루 뛰어들어가 체경 앞에 서서 손으로 머리를 쓸어넘긴다. 수염이 밤가시처럼 흉하다. 나도 수염을 한 번 깎아야겠다고 베푼 지는 벌써 보름이 넘는 일이지만 나는 아직도 그 힘드는 일을 성공하지 못했다. 수염을 한 번 깎자면 허리에 며있던 혁대를 풀러야 하고 대야에 물을 떠와야 하고 비누통을 찾아야 하고 거울을 앞에다 준비해 와야 하니 사실이지 성가시다.⁵⁾

이런 <나>의 心境과 처지는 20代 初半의 崔仁旭의 생활의 片鱗이 기록된 것 같다. 이것은 1940년 전후 崔仁旭의 삶의 모습이면서 同時에 植民地時代 知識 青年의 삶의 모습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작품을 통해서 일제말기 좌절감과 권태 속에 살아가는 지식청년의 모습을 통해 韓國人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볼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된다. 이 主人公의 삶의 태도가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그것을 통해 한 시대의 樣相을 볼 수 있다는데 意味를 갖는다.

「童子像」은 어린 아이들이 병에 걸려 죽을 때까지 지켜 본 아버지의 심경을 쓴 소설이다. 崔仁旭의 증언대로 스스로 경험했던 것을 기록한 만큼 어린 아이가 아파 괴로와하는 것과 그 어린 아이의 죽음을 지켜본 父情이 자세히 기록돼 있다.

이 소설의 話者인 <나>는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 와 일년에 네 번이나 남의 집을 전철해야 하는 가난한 사람이다. 어린 아이가 병에 걸렸어도 제대로 치료를 하지 못하다가 위급하게 되자 병원을 찾는다. 병원을 전전하던 끝에 겨우 여의대 병원 소아과에서 診察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제 겨우 여덟 살 밖에 안 된 어린 아이가 진찰 도중 괴로와할 때, 이를 지켜보는 아버지의 아픈 심정이 절실하게 전달된다.

의사는 아이의 가슴에다 청진기를 들이대보고 나더니 척수에다 바늘을 찔러 액체를 뽑아볼 모양으로 간호부를 불러 일변 준비를 하면서 나와 아내는 잠시 밖에 나가 있으라고 하는데 나는

4) 後記, 「底流」, p.217.

5) 「落花賦」, 「現代韓國短篇文學全集」, A-24(文元閣, 1974), pp.46-47.

6 는 문 점

웬일인지 그만 가슴이 설멍하였다. 밖으로 나와서 마음을 쉼겨 기다리고 있었더니 조금 뒤에 진찰실 안에서 웅이가,

「아야!」

하고 소리를 치는데 나는 다리가 와들와들 떨려서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다. 아이는 툼으로 몸을 켜는 듯이 소리를 질렀다.

「아야, 아야, 아야, 아이구 얼마야, 아이구 아이구 아이구 아야야야 아야야야 아이구 얼마야.」
저애가 저렇게 소리를 칠 때는 오죽 아파서 저럴까 하니 칼로 베는 듯 가슴이 아파서 나는 그만 미처 누가 말릴 새도 없이 진찰실로 와락 뛰어들었다. 아내도 어느새 바로 내 곁에 서 있었다.

조수 한 사람 그밖에 간호부가 다섯 사람 이렇게 여섯이나 되는 사람이 아이를 꼼짝 못하게 누르고 팔다리를 사로잡고 하지만 아이는 아픔에 견디지 못해 사람 여섯이 못 이길 정도로 발버둥을 치면서 여전히 「아야」하고 고향을 지르는데 나는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다. …(中略)…

「아이를 그러지 않고는 진찰을 못합니까? 보다시피 이렇게 최악한 아이를 그토록 누르고 아프게 해서야 어디 살겠어요?」

그 때 내 눈에는 나도 모르게 눈물이 피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의사가 나를 똑똑히 쳐다보며,

「여보세요. 그렇지만 아이를 진찰을 안해 보구야 어떻게 병을 짐작한단 말씀이요?」

하고 아주 쌀쌀한 어조로 내쫓는데 나도 그만 심장이 얼음에나 닿은 듯 금시 눈물도 말라 버렸다.⁶⁾

진찰 도중 아픔을 참아내지 못하는 어린애와 그것을 지켜보는 부모와,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진찰할 수 없는 현실이 묘사되어 그 情景이 강렬하게 전달된다.

이 소설은 작자 자신의 직접 體驗한 일이면서 동시에 人生의 斷面이다. 태어나서 8년 밖에 살지 못하고, 그것도 어차피 죽을 어린 아이가 고통스러운 진찰을 거쳐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아이나 그 부모나 가슴을 줄이는 아픔을 겪어야 하는 人生의 斷面이 제시된 것이다. 8년밖에 살지 못하고 그것도 고통 속에서 죽어간 어린애의 인생, 그것을 지켜보아야만 하는 아버지의 처지, 그러면서도 치료를 위해 어려운 진찰을 해야 하는 醫師의 立場 등 세상에 흔히 있는 일 이면서도 아버지의 입장에서 이것을 記錄하고 있어 그 안타까운 心情이 잘 전달된다. 이것은 家庭을 가지고, 어린애의 죽음을 지켜본 한 家長의 아픔을 기록한 것이면서 동시에 인생의 단면을 제시하고 있다는 데 意味를 갖는다.

「登山俱樂部」는 40 전후의 中年 네 사람과 젊은 여인 한 사람 등 다섯 사람이 하룻밤 산에서 보낸 이야기다. 그들이 산에서 하룻밤을 보낼 때의 생활은 유별난 것은 아니다. 문제는 이들이 지니고 있는 공통된 心境이다. 그들은 모두 現實과 政治作態에 대한 불만과 염증을 느끼고 現實逃避의 심경을 갖고 있다. 登山도 일종의 現實에서 떠나고 싶은 마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은 산다는 것, 그리고 人生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는 것

6) “童子像”, 『新韓國文學全集』(17)(語文閣, 1975), pp.450-451.

이다.

이 小說의 背景이 된 것은 1956년 大統領 選舉를 전후한 시기다. 5·15 선거에 이들이 마음으로부터 聲援을 보내고 있던 海公이 갑자기 서거하자 크게 실망한다. 기대를 걸 것은 副統領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이 소설의 主人公 <세진>의 서재에서 開票結果를 라디오를 통해 듣다가 개표가 중단되는 등 불길한 豫感을 갖게 되면서 현실에 환멸을 느끼고 있다.

이런 心境이 그들로 하여금 登山俱樂部를 조직하고 자주 山에 오르고 있다.

산은 그들에게 있어 온갖 부당한 간섭도 없고, 법의 제약까지도 없는 자유의 천지였다. 그들이 등산구락부를 조직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이나마 귀중한 시간을 내어 산을 찾는 목적은 이러한 자유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함이었다.

흔히 옛날 사람들은 인간 사회에 염증이 나고 권력에 패망할 때 그 도피처로 선택한 곳이 산이었다. 伯夷叔齊가 그러했고, 崔致遠이 그러했고, 그밖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길로 흘러갔다. 또한 반드시 도피가 아니라도 자연에 탐닉한다는 것은 전통적인 동양사상의 일면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들이 등산을 하는 것은 세상에 대한 도피도 아니고, 자연에 대한 탐닉도 아닌 오직 인간이 인간으로서 누려보고 싶은 아무런 제약없는 개방된 세계, 자유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자유보다 한층 더 윗길로 가는 자유를 누려보자는 데에 의의가 있는 것이었다.

세진은 아까 許양에 대해서 도피가 아니란 말끝에 한잔 마시고 흥을 돋구어 그들이 등산에 대한 근본 취지를 장광설로 떠들어대었다.

여기서는 남의 이목에 대해서 신경을 쓸 필요도 없었고 체면이나 위신을 생각할 필요도 없었다. 별거숭이 인간 그대로의 본연의 자태가 그들로 하여금 더욱 친절감을 갖게 하였고 따뜻한 인정을 나누어 가지게 하였다.⁷⁾

이와 같은 記述은 이 소설을 쓸 무렵의 崔仁旭의 私的 心境의 表白으로 보인다. 現實逃避가 아니라고 강변하면서도 現實에서 벗어나 自由로운 삶을 생각하고 있다. 現實에 대한 못마땅함을 현실에서 벗어나는 데서 慰勞를 받고 싶었고 그것이 현실도피가 아니냐는 知識人으로서의 反省과 함께 그렇지 않다는 正當性을 찾아 보려는 心境의 片鱗일 것이다. 그가 後日 小說의 素材를 歷史로 돌려 그것을 小說化하게 된 것도 歷史를 통해서 現實을 이야기하기보다 過去로 돌아가 現實의 답답함을 잊어 보려는 심경도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推測도 해볼 수 있다.

이런 도피의 심경과 함께 그 위에 오는 것은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이고 人間이란 어떤 存在냐 하는 데까지 발전하게 된다.

「인간이 산다는 건 도대체 뭐냐 말야. 사는 날까지 살아봤자 결국 무의미한 노릇 아니겠어. 난 결국 인간도 개나 돼지와 마찬가지로 생명보존과 종족보존 외에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黃씨의 말이었다.

7) “登山俱樂部”, 上揭書, pp.463-464.

「그래도 인간은 이성(理性)의 동물로서 하는 일이 있지 않아. 자동차도 멧그러내고 비행기도 멧그러내고……」

뜻씨의 반박이었다. 뜻씨의 반박을 황씨가 다시 또 반박하였다.

「그대 그깟게 뭐냐 말야. 인간이 이성으로 만들어내는 건 기껏해야 그게 다 생명보존을 위한 목적밖에 더 있는가 말이지. 개가 뛰어다니는 데 사람은 자기 손으로 만들어낸 자동차를 타고 좀 더 편리하다는 것 뿐이다. 그밖에 또 뭐가 있어?」

「그래 인간이 아무려면 개나 돼지와 같단 말야? 이거 참……당신 같은 사람하곤 더 얘기했자 스응없이, 입만 아프지.」

「여러 소리 말아, 사는데까지 살다가 죽어지면 그뿐인 걸.」

둘이 옥신각신 하는 판에 세진이 또 말참견을 하였다.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인간은 생명보존과 종족보존의 본능 이외에 쾌락을 즐기려는 본능을 한 가지 더 타고 났다고…… 그러니까 사는데까지 사는데도 어떻게 하면 좀더 즐겁게 사느냐가 문제란 말야. 그래서 인간은 좀더 즐거우려고 여러 가지 예술에 정력을 기울이고 있지. 인간은 죽으면 그만이지만 죽는 날까지 좀더 즐거움을 누리고 산다는 의의가 있어. 그러니까 결론을 말한다면 차라리 종교는 부정할지라도 예술은 부정할 수가 없지 않을까?」⁸⁾

이 인용문에 드러난 <세진>의 발언은 동시에 崔仁旭의 발언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의 人生觀, 藝術觀이 이 文章 속에 드러난다.

위에 언급한 「落花賦」, 「童子像」, 「登山俱樂部」 등은 素材에의 接近에 있어서나 處理에 있어서나 隨筆의 접근이요, 처리요, 作家의 心境, 生活周邊의 이야기가 主流를 이룬다. 따라서 私的 體驗의 陳述, 私의 心境의 陳述 그것으로 一種의 私小說의 要素가 짙은 작품들이다.

3. 民衆의 受難

「멧돼지와 木炭」(1942)과 「개나리」(1948)는 解放前後 한국 민중이 겪은 受難의 記錄이다. 이 두 소설의 作中人物 <김봉식>과 <연이>는 당시의 한국 民衆의 한 典型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멧돼지와 木炭」의 <김봉식>등 炭夫들은 겨울철 눈이 깊게 쌓인 山에 올라가 나무를 베어다가 숲을 굽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고생하면서 일을 하면서도 그들을 雇用한 會社의 <주임>과 그의 下手人인 人夫監督 <박순필>의 농간으로 正當한 勞動의 代價를 받지 못한다.

주임이 회사에서 보내온 돈을 가지고 탄부들의 간조를 걸러가면서 변리(貸金業)를 한다는 것과, 탄부들이 급히 돈 쓸 일이 있어 전차(前借)를 하려 가던 돈은 취해 주지 않고, 일한 전표를 할인을 해서 자기가 사기로 하고 가령 전표가 일원짜리라면 구십전을 쳐서 내어준다…….⁹⁾

8) “登山俱樂部”, pp.470-471.

9) “멧돼지와 木炭”, 「現代韓國短篇文學全集」, A-24, p.59.

이 引用文에 드러난 대로 주임은 炭夫들을 착취하여 私服을 채우고 있다. 炭夫들이 가난한 생활을 벗어나려고 해도 勞動條件과 環境이 그것을 가로 막고 있다. 되풀이 되는 가난과 관리자들의 농간이 炭夫들의 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주임>과 <인부감독>에게 反旗를 든 것이 <김봉식>이다. 그는 같은 炭夫들이 <주임>과 <인부감독>이 부당한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체념하고 살아가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다. 그것은 炭夫들이 無知에서 오는 두려움과 타성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인부감독>의 꾀임에 빠져 술과 노름으로 나날을 보내는 炭夫들을 깨우쳐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夜學을 열어 가르치려다가 도리어 주임에게 쫓겨난다. 그런데 이 <주임>이라는 사람은 韓國人이 아니라 日本人이었다는 것이 崔仁旭의 얘기다.

이 작품에 나오는 인물 중 <주임>이란 者는 그 모델이 일본사람이다. 日本人을 日本人으로 밝히지 않은 것은 이 작품이 발표된 시기¹⁰⁾를 생각해 보면 알 일이다.

인부감독 <박순필>은 日政에 아부하던 人物들의 한 典型, <진술>은 總望에서 고민하던 青年인 데리, <봉식>은 우리 善良한 人民의 代表的 人物이다.¹¹⁾

日帝와 日本人에게 시달림을 받았다는 점에서 「개나리」의 <연이>도 비슷하다. 그녀는 17차 때에 비슷한 처지에 있는 남자와 결혼했다. 44년 解放 전해 남편은 징용에 끌려나가고 그녀는 그때 妊娠中이었다.

해방이 되자 남편은 遺骨이 되어 돌아오고 그녀는 어린애를 낳는다. 생활이 어려워 잠시 姪叔의 신세를 지다가 눈치가 띄어 親庭으로 물러나온다. 그러나 가난한 친정은 한 입이라도 덜기 위해 再婚을 強勸하고 그녀는 할 수 없이 이에 응한다. 재혼을 하더라도 어린 아들과 함께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위안을 얻으려 했다. 그러나 再婚하게 되자 새 男便은 어린애는 친정에 맡겨 놓게 하고 그녀만 데려간다. 재혼과 더불어 母子는 이별할 수 밖에 없었다.

解放 前後를 배경으로 善良하고 無識한 한 女人이 겪는 이 受難의 記錄은 단순한 한 個人의 삶을 기록한 것만이 아닐 것이다. 崔仁旭은 이렇게 記錄한다.

<연이>는 곧 韓國이다. 韓國을 한 女人으로 바꾸어 놓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日政 때는 저들에게 男便을 빼앗기고 解放後에는 또 제대로 家庭도 못이루고 사랑하는 자식도 제대로 못기르고 <연이>는 갈팡질팡이다.¹²⁾

<김봉식>과 炭夫들, <연이>와 그의 남편등은 開化의 세계를 제대로 받지 못했을 뿐 아

10) 이 作品은 1942年 12月 「春秋」誌에 발표되었다.

11) 後記, 「底流」, p.217.

12) 後記, p.217.

나라 知的, 教育的 訓練을 받지 못한 民衆들이다. 그들은 時代의 변화나 그 條件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被害를 입고 있다. 이들의 아픔과 수난은 곧 해방 전후 한국 민중들이 겪었던 수난의 한 樣相이요, 이들의 受難을 記錄한 것은 崔仁旭의 作家精神의 또 다른 一面을 보여주는 것이다.

4. 生活과 倫理

「두 商人의 記錄」(1949), 「初冬記」(1949), 「夜警」(1955), 「어떤 秘話」(1964), 「逆徒라는 이름의 死刑囚」(1965), 「地圖」(1966) 등은 人間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良心이란 무엇인가 하는 삶과 倫理의 問題가 다루어지고 있다. 이 계열의 小說들의 序변에 흐르고 있는 主題는 人間이란 良心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價値있는 삶이나 하는 문제도 提起된다.

눈 앞의 利益을 위해 一時 良心을 속이고 싶은 誘惑이 있음에도 그것을 벗어나는 이야기가 「두 商人의 記錄」과 「夜警」이고, 아예 良心을 내던지고 눈 앞의 實利를 꾀하고 있는 이야기가 「어떤 秘話」다.

「양심에다 먹칠만 조금 하면, 그 가운데 무궁한 조화가 있거든. 머리를 쓰기 나름이야. 아무것도 겁날 것은 없어. 아, 뒷자리에 있는 놈들은 나라명인 공원도 척척 팔아먹는 세상인데, 내가 좀 흐릿한 짓을 하기로니 한 달에 오천원도 못받는 놈이 그런 짓도 안하고서야 어떻게 밥을 먹고 부모처자를 먹여 살릴 수 있나. 그래도 사람은 양심으로 살아야 한단구? 그건 옛날 얘기지. 요즘 새 공화국(共和國)시대에는 그래서는 못살아. 아, 바른 말이지 자네 누이가 극장 앞에서 검팔이를 하다가 요즘 귀부인이 된 것이 다 누구 때문인 줄 아누?」

황태명은 새 시대의 이도(吏道)는 되도록 양심을 마비시켜 사유(私慾)를 충족하는 데 있다고 역설하고 자기의 비법(秘法)을 얘기한다¹³⁾

이것은 이 小說의 주인공인 <황태명>의 입을 통해 표현된 사는 방법의 문제다. <황태명>은 C病院의 4급 공무원이다. 俸級을 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었다. 할 수 없이 生計를 보태기 위해 아내는 劇場 앞에서 검팔이로 나서야 했다. 이렇게 되자 <황태명>은 良心을 내던지기로 하고 가난한 入院 환자들을 속여 入院費를 가로채는 등 있는 方法을 다 勳員해서 돈을 모으고 上納한다. 여기에 한 번 밥을 들여놓기 시작하면서 계속 돈을 모으고 上納하고 放蕩한 생활을 계속한다.

그런 생활이 계속되는 동안 6·25 때 소대장이었다가 戰死한 朴上士의 아내까지 犯하게 된다. 물론 <황태명>으로서는 그 여자가 옛 上司의 夫人이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 秘話

13) 「어떤 秘話」, 「文學春秋」, (1964. 8), p.75.

일 뿐 '그 때 죽은 자들은 누구를 위해 죽었기에 남은 가족들이 이렇게 천대를 받아야 하느냐?' 하는 〈업신〉의 개탄의 소리¹⁴⁾에는 作家의 목소리도 섞여 있다. 常識의인 主題이면서도 韓國의 作家들이 자주 다루고 있는 문제다.

「逆徒라는 이름의 死刑囚」는 李朝 明宗 때를 배경으로 한 小說이면서도 오늘날도 문제가 되고 있는 良心과 삶 의 문제가 提起된 이 계열의 小說로서는 두드러진 作品이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두 인물 〈황수명〉과 〈이기백〉은 李朝 선비의 한 典型이다. 〈이기백〉은 옳은 것은 옳다 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주장하면서 權力에 아첨하지 않는다. 身邊에 위험이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병든 어머니를 두고 도망치지 않으려는 孝子이기도 하다. 그는 禁府都司가 일부러 도망할 기회를 주어도 도망가지 않은 깨끗한 선비다.

이에 못지 않게 〈황수명〉도 선비다. 그는 權力鬭爭에 휩쓸려 희생당하는 사람들을 罪人으로 몰아넣고 죄를 만들어 죽이고 혹은 귀양 보내는 것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다. 그는 直講인 〈이기백〉이 罪가 없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逮捕하지 않고 도망칠 기회를 만들어 준다.

황수명은 소변을 보면서 이 동안에 이기백이 도망질을 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아니 실상은 그런 의도로써 멀찌기 물러 나와 소변을 보기로 한 것이었다.

황수명은 소윤의 패도 아니었고 대윤의 패도 아니었다. 자기는 이 나라의 백성들이 바치는 세납에서 녹을 먹고 죄인을 다스리는 것이 직책인 일개 금부도사일 뿐인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권력을 따라 어느 한편의 사병(私兵)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다. 다만 따를 것은 권력이 아니라 양심을 따를 것 뿐이었다. 이기백은 명백히 죄인이 아니지 않는가. 그는 학문에 종사하는 선비일 뿐이다. 선비는 학문을 연구하고 바른 말을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다. 선비로서 바른 말을 한 것이 하등 죄가 될 것은 없지 않은가.(…中略…)

황수명은 생각하는 일을 계속하였다. 도사로서 지목이 내린 사람을 잡는 것이 직책이지만, 그러나 번연히 죄가 없는 줄을 알면서 죄없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음의 구렁이로 밀어넣는다는 것은 과연 옳은가.(…中略…)

황수명은 한동안 눈을 지그시 감았다가 다시 떴다. 눈을 뜨는 순간 그는 이 문제의 해답을 스스로 찾아냈다. 나는 양심을 따를 뿐이라고.¹⁵⁾

罪人을 잡아야 할 禁府都司가 도리어 죄인을 놓아 주었다는 것이 小尹의 패에게 알려져 〈황수명〉은 체포된다. 良心을 선택하고 權力에 아첨하지 않는 것이 그를 獄으로 향하게 한다. 그는 世俗의 利益을 추구하여 〈이기백〉을 체포했다라면 도리어 出世의 길이 열렸을지도 모른다. 그것을 알면서도 良心을 선택한 그는 이조의 깨끗한 선비의 한 典型이다.

이 小說은 李朝의 선비들이 가지고 있는 精神을 새삼 點檢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14) “어떤 秘話”, p.79.

15) “逆徒라는 이름의 死刑囚”, 『現代韓國短篇文學全集』, A-24, pp.272-273.

倫理의 문제를 提起하고 있다.

이 계열의 小説은 人間의 삶과 倫理의 문제가 제기되고 그것을 통해서 道德的인 삶을 追求한 이 作家의 精神의 한 片鱗을 드러내고 있다.

Ⅱ 技 術 의 樣 相

1. 作 中 人 物

崔仁旭 小説에 등장하는 人物들을 類型別로 나누어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A型 : <정주>(「月下吹笛圖」), <동진>(「落葉抄」), <영근>(「初冬記」), <박인창>(「夜警」), <박일성>(「막다른 골목」), <진술>(「멧패지와 木炭」), <박도수>(「두 商人의 記錄」), <황명수>(「逆徒라는 이름의 사나이」), <이기백>(「逆徒라는 이름의 사나이」), <월숙>(「月下吹笛圖」) 등.

B型 : <주임>(「멧패지와 木炭」), <인부감독>(「멧패지와 木炭」), <판암>(「두 商人의 記錄」), <박군>(「못난이」), <황태명>(「어떤 秘話」), <정진규>(「어떤 夫婦」), <아내>(「俗物」), <영숙>(「底流」), <연옥이>(「연옥이」), <고씨夫人>(「人生의 그늘」), <아내>(「막다른 골목」), <여옥>(「落葉抄」) 등.

C型 : <영길>(「底流」), <지서방>(「俗物」), <철>(「어린 被害者」), <박배수>(「生活의 空白地帶」), <준구>(「古家의 지붕밑」), <여옥>(「落葉抄」) 등.

D型 : <연이>(「개나리」), <한실>(「대북이」), <김봉식>(「멧패지와 木炭」), <남편>(「개나리」), <대북이>(「대북이」) 등.

A型的 인물들은 封建的 教育이전, 近代의 教育이전 教育의 세계를 받은 인물들이다. <황명수>와 <이기백>이 李朝 때의 선비로서 봉건적인 儒敎教育을 받은 사람이라면 나머지 인물들은 근대적 教育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 作中人物들은 그런 教育의 세계를 받은 것을 바탕으로 해서 무엇이 옳고 그르며, 어떻게 사는 것이 人間다운 삶이나 하는 것을 判斷할 能力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되도록 옳은 것을 選擇하고 人間답게 살려고 애를 쓰는 인물들로 韓國의 知識層을 대변하는 인물들이라고 볼 수 있다.

우선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社會的 地位를 점검해 본다면 <황명수>는 從五品인 禁府都事요, <이기백>은 正五品인 成均館 直講이다. 나머지 近代의 人物들은 作家요, 新聞記者인 <정주>(「月下吹笛圖」), 前職記者인 <동진>(「落葉抄」), 詩人이요, 大學講師인 <박일성>

(「막다른 골목」), 회사원인 〈박인창〉(「夜警」), 敎員인〈영근〉(「初冬記」), 畫家인〈월숙〉(「月下吹笛圖」) 등 近代社會에서 專門職이거나 그에 가까운 자리에서 일하는 인물들이다. 이런 人物들은 崔仁旭의 分身이거나 그의 그림자가 投影된 인물들인 「落花賦」의 〈나〉, 「童子像」의 〈나〉, 「人生的 그늘」의 〈나〉, 「登山俱樂部」의 〈세진〉 등과 精神的 共感帶를 지니고 있는 인물들이다. 따라서 崔仁旭은 이런 人物들을 登場시켜 知識人들의 삶 樣相을 提示하고 있다. 대체로 崔仁旭은 이들 인물들을 肯定하고 그들의 處地에 同情을 보이고 있다.

B型的 인물들은 否定的으로 描寫되고 있다. 良心을 버리고 눈 앞의 이익에만 몰두하는 인물들인 〈주임〉, 〈인부감독〉, 〈관암〉, 〈황태명〉, 〈박군〉 등과 道德的 自制力을 잃고 방황하는 女人들인 〈고씨부인〉, 〈아내〉(「막다른 골목」), 〈아내〉(「俗物」), 〈연옥이〉, 〈영숙〉 등을 창조해 놓고 있다. 특히 女人들의 경우 남편 이외의 男子와 姦通하는 女人들을 많이 登場시키고 있고, 그 동기가 다분히 通俗的이어서 崔仁旭이 女人을 보는 한계를 보여주기도 한다. 간통의 경우에는 그만한 人間의 苦惱와 그것이 지니고 있는 人間性的 探究, 혹은 人間의 自由와 解放이 前提되지 않는 日常事의 複寫, 人生的 斷面의 複寫에 머무르고 있다.

C型的 人物들은 6·25라는 民族의 悲劇의 外중에서 희생된 人들이다.

인민군에게 시달린 어린 소년 〈철〉(「어린 被害者」), 6·25로 父母를 잃고 彷徨하는 〈영길〉(「底流」), 피난생활 가운데 어린애를 잃고 生計를 돕기 위해 화장품 장사를 한다고 돌아다니던 아내가 姦通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서방〉(「古家의 지붕밑」) 등 6·25가 가져다 준 悲劇의 外중에서 心身이 함께 병든 人物群이 이들이다. 그러나 이런 人物들 중 두드러진 個性이 있는 인물도 없고, 이 인물들의 悲劇을 통해서 6·25라는 民族의 悲劇에 대한 깊이 있는 探索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두드러진 인물은 없다.

D型的 인물들은 無知하거나 善良한 民衆들이다. 언제나 歷史의 그늘에서 희생을 당하는 弱한 인물들이다.

정용에 끌려가 죽어간〈남편〉(「개나리」)이나 남편을 잃고 살아갈 수 없어 할 수 없이 再嫁하면서도 어린 아들과 이별해야 하는 〈연이〉(「개나리」), 日本人 主任과 인부감독에게 착취를 당하는 〈김봉식〉(「벚꽃지와 木炭」), 가난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인 〈대복이〉와 結婚하지 못하고 돈 있는 〈강주사〉의 쫓으로 들어가는 〈한실이〉(「대복이」) 등은 自己의 意志대로 人生을 사는 人들이 못 된다. 언제나 受動的이요, 被害를 입으면서 살아가는 人들이다. 崔仁旭은 이들 인물들에 대한 同情과 憐憫을 보내고 있다. 그것은 그가 民衆들의 삶에 동정을 보내고 그들이 人間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데 대한 아픈 意識이 이렇게 小說化된 것으로 보인다.

崔仁旭의 作中人物 가운데 小說史에 깊이 새겨질 그런 人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독특한 個性이나 한 時代의 典型으로 내세울 수 있는 인물이 없다. 도리어 그의 小說의 人物 가운데

作家的 그림자나 分身으로 생각 되는 人物들 —「登山俱樂部」의 〈세진〉, 「童子像」의 〈나〉, 「人生的 그늘」의 〈나〉, 「落花賦」의 〈나〉 등이 讀者들의 意識 속에 뿌리를 내릴 것 같다. 그것은 어려운 時代를 살아가는 知識人들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2. 背景과 氛圍氣

崔仁旭의 소설 가운데는 都市를 배경으로 한 作品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도시보다 시골, 시골 가운데서도 깊은 산골을 배경으로 한 소설이 두드러져 보인다.

이것은 그의 小說이 反都市, 反世俗, 反現實的 要素와 함께 그의 作品세계의 단면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落葉抄」, 「개나리」, 「두 商人의 記錄」, 「落花賦」 등이 시골, 시골 가운데서도 깊은 산골이라면 「月下吹笛圖」, 「人生黃昏」 등은 절(寺)이 배경이 되어 있고, 「登山俱樂部」는 山이 배경이 되어 있다. 따라서 이런 배경은 그 배경이 가져다 주는 독특한 분위기와 아울러 浪漫의 色調를 이루고 있다.

이윽고 싸늘한 바람이 일면서 그 여인의 고동색 치마가 부드럽게 뒹뒹거렸다. 그와 동시에 담장 위에까지 솟은 코스모스 가지에서 연분홍과 자주색의 꽃잎새가 나비떼처럼 날아 땅에 앉는다. 잠시 말이 없이 이것을 바라보던 여인은 살며시 허리를 굽혀 날아 앉은 꽃잎새들을 낱낱히 주워 모아 손에 가득히 차기를 기다려 허공에다 날려 보낸다. 꽃잎새들은 또 가볍게 팔랑거리며 땅 위로 날아 앉는다. 여인은 그 파리한 얼굴에다 잠시 열은 웃음을 띠어 보더니 또 한 차례 꽃잎새들을 주워 모아 역시 아까처럼 날린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그 꽃잎들이 마저 날아 앉기도 전에 얼굴빛이 몹시 어두워지며 그만 발길을 돌려 부엌 모퉁이로 사라져 버린다.¹⁶⁾

깊은 산 속 한적한 절(寺)의 가을 풍경의 한 모습이 여기 제시되고 있다. 절(寺)이 가져다 주는 분위기, 안색이 파리한 女人, 연분홍과 자주색의 코스모스, 고동색 치마 등으로 이루어진 이 文章 속에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낭만적 분위기와 色調다. 더 나아가 感傷의 色調이기도 하다. 現實을 벗어난 또 하나의 세계가 독자 앞에 제시된다.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女人은 벌써 凡常한 人物이 아닐 것이라는 暗示와 함께 여기서 일어나는 事件도 脫日常의인 특이한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동근 달 아래에 맑은 호수가 있고 그 호수 가장자리에는 고목이 다 된 수양이 몇 그루 실낱 같은 가지를 드리웠는데, 호수 이편으로 조금 떨어져 소나무 한 그루가 뼈다귀만 남은 가지를 뽀뽀 고섰는데 또 그 소나무 밑에는 이끼가 파랗게 앉은 바위가 있고 그 바윗등에는 찻지가 한 분 비스듬히 누워 젖대를 부는 그런 그림이었다.¹⁷⁾

16) 「月下吹笛圖」, 上揭書, p.15.

17) 「月下吹笛圖」, p.28.

이것은 고동색 치마를 입고, 얼굴이 파리한 女人이 죽기 전에 그린 그림이다. 이 그림을 통해서 暗示하는 것은 女人의 意識과 心境이다.

現實의 답답함, 世俗에 대한 염증 곧 ‘구테기 같은 인간들보다는 오히려 한 가지 꽃과 달 그런 데로 정이 쏠리고 더 애착이’¹⁸⁾ 간다는 心境을 吐露하는 인물이 드러나고, 그의 삶이 낭만적 분위기와 색조 속에 溶解되어 脫世俗의 사랑이라는 이 소설의 主題를 드러내는데 효과적이다.

이런 낭만적 色調와 분위기는 그의 初期小說들에 특히 드러난다.

길 옆으로 시내가 처얼철 흘러 내리고 계변에는 군데군데 산국(山菊)이 피어 산을 더 흰층 빛 내고 있다. 그 곳 사이로 다람쥐들이 먹을 것을 찾아 이리 뛰고 저리 달아나고 하는 풍경, 그것은 바로 한 폭의 활화였다.¹⁹⁾

이 친구 시골 가드니
무슨 멋으로 사냐구요?

果樹園에서 어정대다 보면
날 가는 줄 모릅니다.

낮이면
巖에서 떠죽이 울고,
밤이면 밤마다
숫작새가 울지요.

오는 공일에는
식구대로
산노리플 가잡니다.

뭐 고사리를 쟀다나요.

오나 가나
별 재미야 없어도

저 푸른 하늘을 바랄 계면
저 고운 山川을 대할 계면
그게 은룡 내 것인양 좋아서요.

18) “月下吹簫圖”, p.25.

19) “멧돼지와 木炭”, p.52.

내 이 하늘 밑에 태어난
시름도
잊어 봅니다.

마음이 내킬 때면 생활을 읊어도 보코 또 그것을 글로 적어 보기도 하면서 초야(草野)에 묻혀 사는 동안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다.

산골에는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였다.(中略)

손들은 오는 쪽쪽 과수원에 둘러서 과일들을 사내었다. 배, 능금, 감이 얼마든지 팔렸다.

창고마다 과일이 거둬서 차고 감자, 옥수수, 콩, 팥이 땅에 들어 차서 문자 그대로 오곡이 풍성한 가을이었다.

벌레 우는 가을밤 어머니가 있는 안방에는 마을 새댁들이 한방 모여 앉아 고초일을 따면서 이야기 소리에 흥겨워 밤이 이슬해도 도무지 헤일 줄을 모른다.(中略)

동진(東珍)은 서실에다 램프불을 밝혀놓고 책을 뒤적이다 말고 시름없이 있어서 벽을 바라본다.²⁰⁾

그의 初期小説에도 이런 浪漫的, 感傷의 色調가 짙게 드러나고, 이런 배경과 분위기를 통해 서 脫都市의이라는 作品世界를 드러내는데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것은 自然美의 발견과 추구라는 韓國文學의 傳統과도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IV 結

崔仁旭이 發表한 短篇小説 50余篇을 作品의 主題 또는 內容別로 나누면 대체로 다음과 같이 네 가지 傾向이 있다.

① 浪漫的, 感傷의 色調와 분위기를 背景으로 해서 脫世俗의 사랑과 거기에 따르는 아픔과 갈등을 그린 세계다. 그 대표적인 作品은 「月下吹笛圖」와 「落葉抄」로 그의 初期作에 이런 傾向이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② 作家自身の 生活周邊에서 일어난 일을 作品化하거나, 作家의 人生觀을 담담하게 그린 다분히 私小説의 要素가 짙은 作品世界다. 대표작은 「落花賦」, 「童子像」, 「登山俱樂部」 등으로 여기에 드러나는 것은 이 作家가 現實에 대한 암담한 생각과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은 脫現實, 反世俗의 心境이 발견된다.

③ 解放前後 混亂과 激動期에 한국 민중이 어떻게 受難을 당하고 있는가를 보여준 세계다. 대표작은 「개나리」와 「멧돼지와 木炭」이다. 이 작품들을 통해서 崔仁旭이 民衆에 대한 同情과 憐憫을 지니고 있음을 보게 된다.

20) 「落葉抄」, pp.64-66.

④ 人間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떻게 사는 것이 人間다운 삶이나 하는 문제를 다룬 세계다. 이 계열을 대표하는 것은 「逆徒라는 이름의 死刑囚」, 「初冬記」, 「어떤 秘話」 등으로 人間의 卑俗性을 드러내어 이를 批判하고 있다.

그의 作中人物 가운데는 個性이 뚜렷하거나 한 時代, 또는 한 社會의 典型이 될 수 있는 人物은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人物의 創造라는 측면에서 이 作家의 限界를 드러낸다.

그러나 어려운 時代를 살아가는 知識人의 아픔과 갈등을 통해서 韓國人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보여주는 인물이 몇몇 있다. 「落葉抄」의 〈동진〉, 「멧패지와 木炭」의 〈진술〉, 「童子像」의 〈나〉, 「登山俱樂部」의 〈세진〉 등이 그런 인물들로 이 인물들의 아픔이 곧 한국 지식인들의 아픔이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崔仁旭의 소설에 드러나는 것은 脫世俗, 脫現實의 要素와 함께 小說의 背景을 깊은 산골로 선택하고 그런 배경 아래 浪漫的, 感傷的 色調와 自然美의 발견과 추구라는 점이다. 그의 初期小說에 이 점이 강렬하게 드러나는데 이 점은 李朝文學의 遺産과 같은 자리에 놓고 더 檢討할 문제로 보인다.

— Summary —

A Study on Choi In-uk's Short Stories

Young-hwa Kim

Choi In-uk(1920-1972) is a novelist who wrote 18 novels and more than 50 short stories from his literary debut to his death. When we read his short stories, we can find out 4 phases of tendencies in his short stori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4 phases are as follows:

1) The first phase: His short stories which belong to this phase express the pathos and agony of the people with sentimental hearts; therefore, these stories produce a romantic and sentimental atmosphere. The main works of this phase are "The Picture of Fluting in a Moonlight Night"(1939), "Fallen Leaves"(1948), etc.

2) The second phase: His works of the second phase deal with author's own life, that is, he describes his life, his private experience and his view of life in these stories. The main works are "An Ode on Fallen Blossoms"(1940), "A Stupid Person"(1949), "A Figure of a Child"(1950), "Mountaineering Club"(1956), etc.

3) The third phase: The major works of this phase express sufferings and uneasiness of the Korean people under the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The main works of this phase are "A Gold-banded Lily"(1948), "A Wild bear and a Charcoal"(1942), etc.

4) The fourth phase: The author, *Choi In-uk*'s main concerns with the short stories of this fourth phase lie in the problem of life, that is, 'how to live.' Accordingly he deals with morality and social justice in them. The main short stories which belong to his phase are "The Record of Two Merchants"(1949), "Early Winter"(1949), "Night Watch"(1955), "A Secret Story"(1964), "A Condemned Criminal on a Charge of Treason"(1965), etc.